

#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 둔 학교 운영

## 고성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개최 ... 유재일씨 회장 선출, 부회장 이보일 · 박승로

고성중학교 유재일 학교운영위원장이 올해 고성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에는 거진중학교 이보일 운영위원장과 대진초 박승로 운영위원장이, 간사에는 거성초 김승식 운영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오후 2시 교육청 2층 회의실에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열고, 2010년도 결산보고와 2011년도 신임 임원선출을 실시했다.

유재일 협의회장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을 경청해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학생들



지난 11일 오후 2시 고성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에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열렸다.

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과 협의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학교운영위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학교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및 고성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최광호 기자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 고성군보건소, 주민 150명 대상

고성군보건소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고성문화의 집 3층 대강당에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총 150여명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주민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강좌는 생활환경 및 면역체계 변화에 따라 만성질환인 아토피·천식의 급격한 증가로 개인과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어 아토피성질환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예방적 질병관리로 주민의 건강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강좌에서는 강원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자경 교수가 ‘아토피피부염의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아토피 피부염의 예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에 앞서 주민건강강좌 참석한 대상자에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교육자료 패키지 및 보습제를 제공해 아토피·천식에 대한 교육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강좌를 맡은 김자경 교수는 “지금껏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었다”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강좌 등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 최선미씨는 “국내 아토피·천식질환 전문가가 강의하는 예방관리 건강강좌에 참석한 지역주민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보건소 직원 모두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지난 15일 고성군 문화의집에서 개최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주민 건강강좌 모습.

## 바다사랑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작 시상식 열려

‘제6회 바다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입상작 시상식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속초해양경찰서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속초시 소아초등학교 5학년 이하의 학생이 그린 ‘대한민국 바다지킴이 특공대-기름유출을 막아라!’ 작품이 대상(大賞)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 금상 2명, 은상 4명, 동상 5명, 가작 8명, 입성 58명 및 단체장의 특별상 88명 등 총 146명의 입상자가 선정됐다.

제6회 바다사랑 어린이 그림그

리기 대회는 지난 5월 28일 고성군 화진포 해양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총 562점의 그림이 접수됐다.

심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강릉 원주대학교 미술학과 최윤철 교수(위원장)와 중학교 미술교사 등으로 구성된 5명이 심사를 맡았다.

해양경찰청장상인 대상에는 상장과 메달 및 20만원 문화상품권이 수여되는 등 입상자에 대한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또 수상작 58점의 전시도 진행됐으며, 앞으로 순회 전시를 통해 미래 해양국가의 주역인 어린이 꿈나무들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광연 기자



지난 16일 속초해양경찰서 3층 강당에서 ‘제6회 바다사랑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작 시상식이 열렸다.

##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14]

### 독립운동가 김 갑 성(金甲誠) 1911년 ~ 1935년. 9월

본적은 강원도 고성군(高城郡) 외금강면(外金剛面) 출신이다. 다른 이름으로(異名) 왕의성(王義誠) 사용하였다.

1931년 후반부터 일제의 중국대륙침략이 본격화되자 상해 임정의 김구(金九)는 강화된 한인 독립운동과 중국 국민당정부

간에 국제적 연대를 형성할 목적에서 장개석(蔣介石)이 이끄는 국민당정부의 재정적·군사적 지원을 토대로 한 독자적인 투쟁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따라서 1933년 봄 김구는 중국 남경(南京)의 낙양군관학

교(洛陽軍官學校)에 장개석과 회합하여 한국인 특별반을 설치함에 따라 1934년 봄에 동교 낙양분교(洛陽分校) 한국인 훈련생 90여 명만으로 1개 반을 특설하여 광복 전쟁을 담당할 군관 양성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보게 되었다. 이 한국 군

관 훈련반도 교과 내용 기타는 모두 중국 군관 학교의 예에 의하여 수행되었는데 교과는 정치 훈련과 전술(戰術)에 치중하고 내무·교양 관계의 학과도 겸하였으며, 선생은 이 당시 입학하여 독립군 군관양성훈련을 받았다. 그 후 1934년 12월 하순 낙양군관학교 한국인 특별반이 해체된 다음 특별반을 설치하였던 김구는, 다시 남경(南京) 성내(城內)에서 약 80명의 한국특무대 독립군을 조직하여 무장 수련으로 대일 항전의 중추 세력을 이루기 위한 학생 훈련소를 설치하여 군사훈련을 받던

선생은 1935년 9월 사격장에서 수류탄 투척 연습 중 잘못으로 던진 수류탄의 파편에 맞아 순국(殉國)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出典:『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 第6卷,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年, p.126.

『독립유공자공훈록(獨立有功者功勳錄) 第12卷, 국가보훈처, p.132.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제공〉  
(010-5373-2156)